

■ 미국 진출 '골프 지존' 신지애

“체력 보강해 LPGA 새 기록에 도전”

‘골프계의 여자 타이거우즈’ ‘기록제조기’로 불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애(21·하이마트)가 마침내 2009년 정식으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다.

지난해에는 LPGA 투어 비회원으로서 최초 3승을 올렸고, 일본 투어에서 1승과 3차례 준우승을 기록했다. 또 국내 3개 대회 메이저 대회 전관왕(시즌 7승)을 포함, 국내외에서 받은 상금만 42억원에 이르렀다.

3년간의 화려했던 국내무대를 뒤로하고 LPGA 정복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신지애 프로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영광충신으로 합평골프고를 졸업한 전남의 자랑스런 딸인 신 프로는 “고향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 해 LPGA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다음은 신지애 프로와 일본일담

▲ 국내 최고 선수 자리를 3년간 지켰고, 화려한 국내무대를 뒤로 하고 LPGA로 진출하게 됐는데 감회는...
▲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상식에서 5개의 트로피를 안으며 국내무대를 마무리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LPGA 무대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 200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이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각오가 새롭다.

- 우승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마지막 라운드에 강해 ‘파이널 린’이란 예정도 있는데.
▲ 골프는 멘탈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나만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예정이 붙은 것 같다. 전문가들은 내가 코스 매니지먼트를 잘하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 게임 중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다.
▲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의식하기보다 내 자신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 자신감과 여유를 갖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 같다. 예쁘게 봐 줬으면 좋겠다.

- LPGA 진출을 앞두고 보완해야 될 점은...
▲ 너무 자만인지 모르지만 스윙 등 기술적인 부분은 고칠 게 없다. 많은 게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체력보완에 힘쓸 계획이다.

- 지난해 국내와 미국, 일본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는데 체력유지 비결은.
▲ 부모님이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체력은 자신이다.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체력 유지 비결이다. 여기에 홍삼과 장어를 꾸준히 먹는다. 특히 게임 전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과일과 야채를 주로 먹는다.

- 지난해 상금이 많이 받았다. ‘스포츠 재벌’ 대열에 들어섰는데.
▲ 많은 사람들이 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상금 전액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캐디에게 주는 돈, 세금 등을 제외하면 50% 정도가 내 몫이다. 물론 큰 돈

“
육식 않고 장어·홍삼 꾸준히 먹어요
스윙 등 기술적인 부분 고칠 것 없어
온라인으로 공부...학점관리도 해야죠
”



▲ 골프특기생이지만 학점 관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 해도 인터넷을 통해 수업도 하고, 시험도 봐야 한다. 학점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 골프도 중요하지만 학업도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다.

- 최근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일본어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중에 언제 어학을 공부했나.
▲ 아직 능숙하지는 않다. 지난 2년간 골프 휴식기인 겨울에 한 달씩 영어 개인 교습 받게 전부다. 아버지가 단어, 일상 회화, 문법 파일 등을 다운받아 주신 것을 활용하고, 호주 출신 캐디와 경기 다니면서 영어로 얘기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어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 지난해 해외 투어 출전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 고향의 팬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아쉽고 많이 보고 싶다. 고향은 세계적 선수가 되는 꿈을 키운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다. 많은 응원과 따뜻한 성원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고향 팬들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전남의 딸임을 잊지 않겠다.

-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 지난해 해외 투어 출전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 고향의 팬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아쉽고 많이 보고 싶다. 고향은 세계적 선수가 되는 꿈을 키운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다. 많은 응원과 따뜻한 성원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고향 팬들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전남의 딸임을 잊지 않겠다.

-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 지난해 해외 투어 출전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 고향의 팬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아쉽고 많이 보고 싶다. 고향은 세계적 선수가 되는 꿈을 키운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다. 많은 응원과 따뜻한 성원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고향 팬들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전남의 딸임을 잊지 않겠다.

-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 지난해 해외 투어 출전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 고향의 팬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아쉽고 많이 보고 싶다. 고향은 세계적 선수가 되는 꿈을 키운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다. 많은 응원과 따뜻한 성원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고향 팬들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전남의 딸임을 잊지 않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신지애 프로필

- ▲ 1988년 4월 28일 생
- ▲ 신장 1m 56cm
- ▲ 가족 : 아버지(신재섭 씨)와 동생 2명
- ▲ 영광 흥농초등-흥농중-합평골프고-연세대(체육교육학과) 재학
- ▲ 골프 입문 : 초등 5학년 때 영광원전 구내 골프연습장
- ▲ 프로 데뷔 : 2005년 11월 SK엔크린인비테이션대회 아마추어로 출전, 우승 후 프로 전향
- ▲ 존경하는 골퍼 : 줄리 잉스터, 로레나 오초아

작년 LPGA 우승 ▶



브리티시 오픈



미즈노 클래식



ADT 챔피언십

땀 흘린 농부님의 사물에 감사드리며
날 같은시작에 새해를 깨우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입한 소의 기운으로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광주일보 지사·지국장 일동 -

2009년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구분	이름	전화번호	구분	이름	전화번호	구분	이름	전화번호
지사	김기현	010-9707-1111	지국장	김기현	010-9707-1111	지국장	김기현	010-9707-1111
	김기현	010-9707-1111		김기현	010-9707-1111		김기현	010-9707-1111